

성장 및 소득분포 관련 컨퍼런스 참석 및 세미나 발표 결과

- ◇ 성장 및 소득분포 관련 컨퍼런스 참여 및 연구과제*의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해 관련 연구자**와 토론
 - * 지식자본과 자본-노동간 소득분배
 - ** C. Jones (Stanford U), F. Guvenen (U. of Minnesota), R. Tang (SUFU), H. Jiang (SUFU) 등
- ◇ 출장일: 2019.12.6.~12.11
- ◇ 출장지역: 중국, 상해 (Shangha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)

1 성과급 및 직업에의 매치 정도가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(Rongsheng Tang, SUFE)

(논문 내용)

- 1990년대 미국의 임금불평등은 급격하게 확대되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집단간의 임금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집단내 임금불평등 확대에 기인
- 먼저 집단내 임금불평등과 관련한 세 가지 새로운 사실을 보고
 - 집단내 임금불평등의 확대는 주로 대학졸업 이상 집단에 집중되어 있음.
 - 산업·직업으로 집단을 구분하면, 각 산업·직업에 성과급 체계가 도입된 정도와 집단내 임금불평등과 강한 양(+)의 상관관계가 존재

- 직업과 전공 간에 매치가 잘 된다고 보고한 근로자가 많은 집단일수록 집단내 임금불평등 정도가 작음.
- 성과급 체계 및 직업-근로자간 매치를 반영한 모형을 설정하고 성과급의 도입 및 직업-근로자간 매치 정도가 집단내 임금불평등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측정
-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.
 - 모형에서 근로자들은 타고난 능력(a)이 다르고 각 직업은 직업특화 생산성(A)에 차이가 있음.
 - 근로자의 전공과 직업이 매치될 확률은 p 이며 매치가 될 경우에는 생산성 프리미엄(η)이 확률적으로 주어짐.
 - 근로자는 성과급 체계 또는 고정급 체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성과급 체계를 선택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모니터링하는 데에 M 만큼의 비용을 지불
 - 기업의 생산함수는 성과급 근로자와 고정급 근로자의 생산을 CES 형태로 결합하며 여기서 성과급 근로자의 비중은 α 임.
 - 직업내에서도, 근로자의 능력(a)이 다르고, 직업매치 확률(p)과 확률적인 생산성(η)이 다르기 때문에 직업내 불평등이 생김.
 - 직업생산성(A), 모니터링비용(M), 성과급 근로자 비중(α), 직업매치확률(p), 생산성프리미엄(η)의 분포 등이 직업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직업간 임금에 차이가 발생

□ 모의실험 결과, 1990년에서 2000년 기간중 성과급 관련 모수의 변화는 직업내 임금불평등의 26%가량을 설명하며 직업-전공 간 매치의 변화는 직업내 임금불평등의 42%를 설명

- 모수는 1990년과 2000년 각각에 대해 직업간 불평등과 직업내 불평등을 목표로 하여 설정

(토론내용)

□ 논문은 관측되지 않은 임금불평등을 관측할 수 있는 “성과급”과 “전공-직업간 매치 정도”를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음.

- 집단내 임금불평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이며 논문에 따르면 두 가지의 추가적인 설명메커니즘이 실제 임금불평등을 매우 잘 설명

□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형의 주요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실증분석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.

- 예를 들어, 실제 교육수준이 높아야 성과급 체계에 더 노출되는지 등을 체크하지 않고 있음.

- 한편 모의실험은 성과급 체계 및 직업-전공간 매치 정도의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제시된 실증분석은 수준 간 관계만 보고하고 있음.

□ 실제로 성과급 체계나 매치 정도가 변화하였다면 왜 변화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□ 한편, 모형에서 직업내 임금불평등의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생산성인데, 이는 전공-직업간 매치가 되었을 때에만 나타나고 있음.

- 모형의 구조가 모의실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우려가 있음

- 능력(a)이 같더라도 우연히 나타나는 생산성이 달라서 직업내 불평등이 나타나는 구조는 사실상 임금불평등을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2 성장의 종말? 인구 감소의 의도치 않은 결과 (Chad Jones, Stanford U.)

□ 최근 성장론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성장의 핵심 근원으로 이해하고 있음

- 따라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특히 준-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양(+)의 인구증가가 없이는 성장이 계속될 수 없음.

- Romer (1990) 등의 초기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아이디어가 비경쟁재화이기 때문에 기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아이디어의 창출이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효과를 발생시켜 경제가 성장

- 준-내생적 성장이론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시 기존 아이디어의 탄력성이 1보다 작다고 가정하여 인구 증가가 없이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특징이 있음.

- 그러나 최근 대부분 선진국에서 출산률이 2보다 작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향후 인구증가가 양(+)일 것이라는 확신이 적어짐.
 - 이에 따라 경제성장론의 관점에서 음(-)의 인구증가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
- 내생적 성장이론과 준-내생적 성장이론 모두에서 음(-)의 인구증가가 있는 경우 1인당 생산량은 특정 수준으로 수렴하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
 - 가구의 출산률이 2이상인 것과 2이하인 것은 미시단위에서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으나 거시단위에서는 성장의 가능성이 바뀌는 큰 기준이 될 수 있음.
- 준-내생적 성장모형에 출산을 내생화하는 경우 양(+)의 인구증가와 양(+)의 성장이 나타나는 균형과 음(-)의 인구증가와 0의 성장이 나타나는 균형이 공존할 수 있음.
 - 음(-)의 인구증가가 나타나는 경우는 아이를 추가로 낳는 비용이 아이로부터 얻는 효용보다 작은 경우 발생.
- 중요한 것은 음(-)의 인구증가가 있는 균형에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정책의 인구증가임.
 - 통상 준-내생적 성장이론은 최적 인구증가가 균형 인구증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임.
 - 이는 새로운 아이가 창출하는 아이디어의 가치를 가구는 인식하지 않으나 사회적으로는 인식해야하기 때문임.

- 그런데 음(-)의 인구증가가 균형일 경우에는 최적 인구증가도 음수(-)일 가능성이 있음.
 - 인구가 감소하면서 1인당 아이디어의 양이 무한대에 수렴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아이디어의 사회적 가치도 상대적으로 작아지는데 아이를 낳는 비용은 일정하기 때문
- 즉, 음(-)의 인구증가가 시장균형일 때에 사회적으로 최적 인구증가는 최적정책의 시행시기가 빠를 때에는 양(+)일 수 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최적 인구 증가 자체가 음(-)으로 변화
- 모형에서는 양(+)의 인구증가와 음(-)의 인구증가 중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음
 - 다만 현재 시장균형으로 음(-)의 인구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적정책의 시작 시점이 늦으면 결국 최적정책에서도 음(-)의 인구증가와 0의 성장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

3 쓰거나 잃거나: 자산세와 효율성 (Fatih Guvenen, U. of Minnesota)

- 전통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과 자산에 대한 세금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음.
 - rK 에 대한 세금과 K 에 대한 세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사실상 r 이 모두 동일하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바탕에 두고 있음.

- 최근 자산불평등과 관련한 많은 연구는 자산수익률이 사람에 따라 매우 이질적이며 이와 같은 이질성이 자산불평등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이라고 보고하고 있음.
 - r 이 사람에 따라 다를 경우 rK 에 대한 세금과 K 에 대한 세금은 같지 않음.
- 이질적인 자산수익률이 존재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세금이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음.
 - 자산수익률에 대한 세금은 결국 K 뿐 아니라 r 이 높은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같은 K 를 가지고 있더라도 더욱 생산적인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함.
 - K 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r 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자산이 비생산적인 경제주체로부터 생산적인 경제주체로 이동하는 효과가 생김.
 -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r 이 높은 사람의 저축유인을 증가시켜 경제전체 투자량을 더 많이 증가시키게 됨.
- 모의실험 결과 자산에 대한 세금은 생산성과 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최적 자산세금은 양(+)으로, 최적 자본소득세금은 음(-)으로 나타남.

4

**지식자본과 자본-노동간 소득분배 (SUFE 학과 세미나)
(Sangmin Aum, KDI)**

- 자본과 노동 간 대체탄력성을 이해하는 것은 기술발전이 노동소득 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변수임.

- 이는 최근의 기술발전이 자본의 생산성 발전을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.
- 특히 최근 기술발전은 유형자본보다 무형자본 생산성 확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유형자본과 무형자본의 영향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.

- 보고서는 자본과 노동간 대체탄력성을 유형자본과 무형자본을 구분하여 추정하고 자본재 생산성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봄.

-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미시단위 대체탄력성을 식별하고 모형을 활용하여 거시단위 대체탄력성을 측정

- 추정결과, 지식자본은 노동을 대체하고 유형자본은 노동과 보완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남.

- 따라서 지식자본 위주의 생산성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

- 본 연구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주장을 아우를 수 있는 메커니즘에 해당

- 다만, 현재 모형은 기업의 마크업비율이 고정적인 것으로 가정되어 있는데 마크업 비율이 높은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수정이 추가적으로 고려되면 더 영향력이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